

불교를 통한 고대 인도 학문의 전파

최성호(남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

초기 불교 교단은 교단 내의 수행자들이 다양한 학문을 배우는 것을 권장하지 않았다. 수행자는 불교 교리 및 계율을 배우고 불교 수행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숫다니빠따』에는 불교도는 해몽, 천문학, 의학 등을 일삼으면 안된다는 진술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고고학 및 문헌학적 자료들은 불교수행자들이 교단의 원칙과는 달리 의학, 천문학 등을 습득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초기불교 문헌에는 다양한 의학지식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후대에 인도불교는 수행자에게 이런 학문들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 인도 대승불교의 한 학파인 유가행파(瑜伽行派, “불교요가수행을 하는 집단”)의 문헌에는 다섯 분야의 “학문”(vidyā)이라는 범주가 등장한다. 이 범주에는 1) 불교교리학, 2)의학, 3)논리학, 4)언어학, 5)기술 및 공예학이 포함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을 섭렵하는 것이 진정한 불교수행자가 되기 위한 필수 덕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비록 세부 과목은 조금 다르지만, 유가행파 외에도 “다섯 분야의 학문”을 확립한 다양한 불교 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교교리를 포함한 다양한 학문을 습득한 “엘리트” 불교수행자는 불교의 전파에 큰 역할을 했다. 불교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한 역경승(譯經僧) 중 상당수는 뛰어난 의학 지식으로 명성이 높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중국과 티벳은 불교를 통해 전승된 고대 인도 학문을 각각 명(明)과 릭내(rig gnas)라는 명칭으로 개념화하고 수용하였다. 특히 티벳은 인도의 의학서, 문법서 등을 번역하고, 학문을 다섯 분과로 나누는 방식을 수용하고 발전시켰다. 반면 중국에서는 불교문헌의 번역 시기가 지난 이후 “다섯 분야의 학문”(五明)이라는 용어는 점차 사라진다. 아마도 중국에는 이미 고유의 교육제도가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를 인도의 학문 분과 체계로 대체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분야에서 인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지식들이 추가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선에서 간행된 『의방유취』(醫方類聚)는 당시 중국과 한국에 전해오는 의학 이론을 집대성한 문헌인데, 여기에는 백내장 수술법이 「용수보살안론」(龍樹菩薩眼論)이라는 이름 아래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용수(龍樹)는 인도의 불교 승려 이름이며, 따라서 이 명칭을 통해 중국에서 이 의학지식이 인도에서 유래한 지식으로 간주되었고 이 지식이 조선까지 전파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 학문이라는 명칭은 발견되지 않지만, 태국에서도 인도 의학이 불교를 통해 전승되었다. 태국에서 『아유르베다』의 전승시기가 불교가 전승되는 시기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아유르베다』는 태국에서 전통 의학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오늘날까지 태국에서 대체의학으로서 체계적인 지원 아래 보존되고 있다.